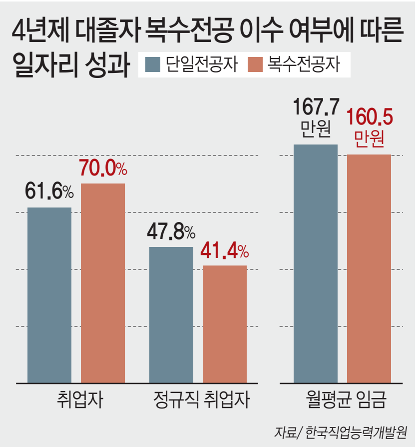
대학 복수전공이 구직에 미치는 영향은

복수전공 취업 잘되고 단일전공 취업질 높아



대졸자 3만여명 직업이동경로 조사

졸업생 10명 중 2명은 복수전공

인문계열>비상경>상경계열 順

복수전공 취업률 단일比 8% 높아

정규직 비율 6.4% 낮고 임금 적어

4년제 대졸자 10명 중 2명은 복수전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전공자들은 단일전공자와 비교해 첫 취업은 잘 해도 정규직 여부나 임금 수준 등 취업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이 공개한 KRIVET 이슈 브리프 제165호 '4년제 대졸자의 복수전공 이수와 첫 일자리 성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년제 대졸자 중 19.5%가 복수전공을 이수했다. 이는 2년 전인 2014년 17.8%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복수전공자의 주전공계열은 인문계열(42.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비상경계열(23.6%), 상경계열(19.3%) 순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의 복수전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문계열 전공자의 복수전공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년 사이 2.9%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복수전공자들이 추가로 선택한 전공은 상경계열이 가장 많았다. 인문계열 졸업생 중 42.5%가 상경계열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고, 상경계열과 다소 이질적인 계열인 공학계열(31.0%)이나 자연계열(36.5%) 전공자의 상경계열 복수전공도 적지 않았다. 이는 상경계열 전공이 취업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전공자는 단일전공자보다는 첫 일자리 취업률은 높지만, 취업의 질로 대변되는 정규직 취업률이나 월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복수전공자 중 70.0%가 취업했으나, 단일전공자(61.6%) 취업률은 이보다 약 8%포인트 낮았다.

반면, 복수전공자의 정규직 취업비율은 41.4%로, 단일전공자(47.8%)보다 낮았고, 월평균 임금 또한 160만 5000원으로 단일전공자(167만7000원)보다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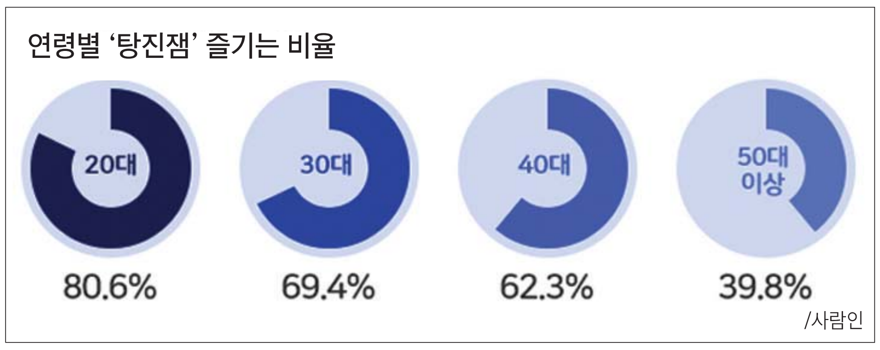
계열별로 자신의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에 따라 그 성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문계열이나 비상경계열 학생이 상경계열로 복수전공을 할 경우 첫 직장에 취업할 확률은 높았지만, 상경계열 학생의 복수전공 이수는 취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연계열의 경우 인문계열 복수전공 이수가 첫 직장 취업 확률보다는 정규직 여부나 월평균 임금 등 취업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졸업자들의 졸업 평점이나 어학연수 경험, 교육이나 훈련 경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한 변수를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복수전공 이수는 취업 확률은 높이지만, 정규직 취업이나 월평균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을 위해 무작정 복수전공을 택하기보다는 계열별 자신의 주전공을 기반으로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백원영 부연구위원은 "취업 전망이 밝다는 이유로 복수전공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주전공을 기반으로 적성과 흥미를 살려 취업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복수전공 제도 운용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학업상담 등을 통해 진로에 맞는 보완적인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인기 전공에 대한 복수전공 프로그램을 개선해 미래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직장인 70% '탕진잼' 즐긴다

〈탕진+재미〉

'기분 전환' 위해 월평균 24만원 소비

연령 낮을수록 많아…지출 1위 '쇼핑'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기분전환을 위해 소소한 낭비를 하는 '탕진소비'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사람인이 직장인 1387명을 대상으로 '기분전환을 위한 탕진잼'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2%가 '탕진잼을 즐긴다'고 답했다.

탕진잼을 즐긴다는 직장인은 여성(79.8%)이 남성(60.5%)보다 20%포인트나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80.6%)가 가장 많았고, 30대(69.4%), 40대(62.3%), 50대 이상(39.8%)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탕진잼을 즐기는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

한달 평균 탕진 비용은 평균 24만원으로 집계됐고, 주로 탕진 소비하는 항목(복수응답)으로는 '옷, 신발, 화장품 등 쇼핑'(66%)이 1위였다. 이어 '배달음식 등 외식'(43.7%), '공연, 영화 등 문화 생활'(30.6%), '음주'(29.1%), '네일샵, 마사지샵 등 자기관리'(14.3%), '게임 아이템 구입'(8.2%), '키덜트 용품 구매(피규어, 레고 등)'(8.1%), '보석, 명품, 카메라 등 고가의 물건'(7.2%) 등도 있었다.

탕진잼 효과에 대한 질문에 '실제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다시 그대로 돌아온다'(40.3%)는 의견이 바로 뒤를 이었고, '카드값 등으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긴다'(16.4%) 등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또 다른 스트레스를 준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한용수 기자

교육부, 학교 미세먼지 해결 총력… 5년간 300억 투입

과기정통부와 기술개발 맞손

학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근거 마련과 법·제도 개선 등 종합대책을 위해 5년간 3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 과학기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46억5100만 원 등 2023년까지 5년 간 정부 지원금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부처 간 장벽 없는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했고, 사업단장 공고와 선정평가를 거쳐 지난 4월 말 연세대 의과대학 신동천 교수가 사업단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단은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의 기획과 관리, 평가 등 전 주기적인 사업관리와 함께 국민 소통을 위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은 ▲기초·원천 ▲통합관리 ▲진단·개선 ▲법·제도 개선의 4개 연구그룹을 구성,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실증과 법·제도 개선까지 통합한 패키지 형태로 추진된다. 연구그룹별로 학생 활동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특성을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축 학교 맞춤형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최적의 공기 정화장치 운전방법 제안, 학교 맞춤형 공기정화장치 인증 규격 마련 등에 나서게 된다. /한용수 기자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韓-스웨덴 과학기술·혁신 포럼' 참석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사진)이 12일~17일까지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은 스웨덴을 방문해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한-스웨덴 과학기술·혁신 포럼'에 참석한다.

양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스웨덴 현지에서 과학기술·혁신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회담과 회의를 개최한다. 김 총장은 이화여대 총장 자격으로 한국과 스웨덴의 국제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한 과학기술분야 협력 방안 논의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

김 총장은 1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논의하고, 한국연구재단의 '한-스웨덴 R&D 네트워크 데이'에서 한국과 스웨덴 주요 대학 총장과 함께 기초연구 연구개발 성과와 방향에 대한 토론에도 나선다.

또 이화여대와 협정을 맺고 있는 웁살라대학(Uppsala Univ.), 카롤린스카 의과대학(Karolinska Institutet) 등을 방문해 북유럽의 교육 철학과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국내 첫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 개소했다. /건국대글로컬캠퍼스

건국대글로벌캠퍼스 국내 첫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개소

반려동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첫 상담센터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문을 열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LINC+사업단과 충주시가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를 종합강의동 스타트업 스페이스 내에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률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분쟁 사례를 건국대 법학 교수와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동물법연구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활발한 연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법률자문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과기대기술지주 1호 자회사 스탠스

기보 투자유치 성공… "기술성·사업화 가능성 입증"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술지주의 제1호 자회사인 스탠스가 지난 5월 기술보증기금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탠스는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이 혁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주최한 제3기 기보벤처캠프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그 해 12월 열린 데모데이(IR)를 통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직접투자(지분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스탠스는 자체 개발한 사용자가 콘텐츠의 원하는 시점을 자유자재로 돌려보며 실시간 3D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술인 'Fanta Real AR' 솔루션을 적용한 사업모델로 기술성과 사업가능성을 입증했다.

서울여대 '2019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업무협약

서울여자대학교는 최근 성북구청에서 '2019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여대는 '드론 자율비행 코딩 및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여름방학기간 동안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아두이노 및 엔트리 코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용수 기자